

‘재미있고 친근한 과학’ 알리기 나선 공영방송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가을이 처음 시작되는 9월초, 대전 KBS를 찾았다. 대덕연구단지에는 연구소들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을 자주 내려갔지만 방송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과학담당자가 방송국을 취재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KBS는 과학기자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KBS 대전방송총국에 과학을 전담할 팀을 만들고 국내 최초로 과학 정규프로그램을 론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과학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흥미가 생겼다. 방송은 신문보다도 더 상업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인데 어떻게 이런 교양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을까.

지금 KBS 홈페이지에는 ‘KBS 과학프로젝트’라는 코너가 새로 생겼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 과학 분야만을 따로 묶은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과학의 향기, 신나라 과학나라와 함께 새로 시작한 사이언스 카페, 준비 중인 과학스페셜이 함께 묶여있다. 또 그 아래에는 올해 방영했던 과학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4편(바이러스, 우주 위험한 꿈의 도전, 제 5의 도시, 화학의 해)이 다시보기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대전에 자리 잡은 KBS 과학프로젝트팀

현재 과학프로젝트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 중인 것은 과학스페셜이다. 과학스페셜의 주제는 태풍과 불, 카페인과 알코올, 동물 실험과 동물복제 등 누구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각 주제에 4편씩, 모두 12편이 일주일 간격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 주일의 과학소식을 전달하는 매거진 성격의 ‘사이언스 카페’도 문을 열었다. 9월 19일 첫 방영해 신선한 프로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에 등지를 튼 과학프로젝트팀은 환경스페셜, 사이언스21, 생로병사의 비밀 등을 제작했던 KBS PD들이 대거 투입됐다. 이강주 팀장은 지금 KBS의 간판교양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처음 기획한 인물이다. 또 이재혁, 윤진규, 송응달, 이



KBS 과학의 향기 홈페이지

치훈, 양홍선 PD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왔다. 박은희, 강남경, 황혜지 PD 등 기존 과학프로그램 제작진들도 합류했다. 이공계 석사학위를 가진 남지화씨(유전학)를 해외과학전문리서치 인력으로 뽑아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강주 팀장은 “KBS가 본사에 근무하던 PD들을 지역에 내려 보내 팀을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영 방송으로서 과학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대전을 과학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 프로젝트팀의 PD들은 대부분 인문계 출신이다. 그렇다 보니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어디에 가면 무슨 정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과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를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의 향기’의 박은희 PD는 입사 10년차의 베테랑이지만 과학 프로그램을 맡고부터 새내기로 돌아간 기분이다. 과거에 알던 제작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박 PD는 적절한 분야의 과학자를 섭외하는 것부터, 과학자의 설명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 적절한 화면을 구하는 것 등이 모두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과학의 향기를 맡은 박 PD는 “녹화 전에 과학자들

에게 서너 시간씩 '강의'를 듣는 것은 예사이며 기초 과학지식을 다지기위해 따로 아는 과학자에게 개인과외를 받는 일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과학 프로는 시청률 낮은 천덕꾸러기(?)

김영신 대전총국장이 대전을 KBS의 과학방송 메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을 때 사내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날로 상업화되는 방송 환경에서 과학 프로그램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있으면 좋지만 굳이 내가 나서고 싶지는 않은 영역, 그것이 바로 과학이었다.

김 국장은 공영방송의 책임감과 지역의 활성화를 설파하며 겨우 경영진의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에는 인력이었다. 각 부문장들이 일 잘하는 젊은 PD를 내놓지 않으려했다. 김 국장은 평소 과학에 흥미 있어 했던 교양제작국 PD들을 개별 접촉해 대전으로 끌어들이었다. 이 과정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방영 시간을 따내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

9월 19일 사이언스 카페가 처음 방영되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신선한 프로그램이다" "잘 봤다"는 격려와 함께 방영시간이 너무 늦다는 불평이 제기됐다. 한주일의 과학뉴스를 전달하는 이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은 오후 11시 40분으로 과학에 한창 흥미 있는 청소년들이 보기는 어려운 시간이다. 대표적인 과학프로그램인 과학의 향기는 아예 밤 12시를 넘은 시간(목요일 저녁 12시40분)에 시작한다.

현재 준비 중인 과학스페셜 12부작은 가을 개편과 함께 1주일에 한 번씩 방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을 개편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 방영 시간을 아직 잡지 못했다. 이강주 팀장은 "황금시간대에 자리를 잡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 없으며 밤 11시라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시청률 경쟁에서 처음부터 '낮은 급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학프로젝트팀의 PD들은 과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사이언스카페 녹화사진(왼쪽)과 MC 김창완



KBS 대전방송총국 과학프로젝트팀원들. 왼쪽부터 윤진규·강남경 PD, 이강주 팀장, 남지화 해외전문리서처, 박은희·황혜지 PD, 이지희 작가, 송웅달 PD. 사진 뒤쪽에 대덕연구단지가 보인다.

시청률 압박을 받고 있다.

'사이언스 카페'의 윤진규 PD는 "이번에 과학프로젝트팀이 실패하면 향후 몇 년간은 다시 KBS에서 과학 프로를 만들자는 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하며 받는 부담감이 크다"고 전했다.

과학자들도 과학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준 높은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또 영국 BBC방송이나 디스커버리 채널과 같은 수준 높은 과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을 사회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가.

방송 관계자들은 "과학계처럼 자기 목소리를 안내는 집단이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책을 말한다'는 프로그램은 출판업계에서 강력하게 KBS에 요구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역사스페셜'이 종영되었을 때 역사학계에서 종영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결국 다시 살려냈다. 그러나 과학프로그램은 특별히 만들라고 압력을 넣는 집단도 없으며 방영한 이후에도 반응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KBS의 변화에 과학계도 일부 동참하고 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 프로 제작을 위해 KBS에 약 8억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방송에 있어 올바른 과학보도 방법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방송에서 과학대중화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될 때 우리나라도 고품격의 질 높은 과학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